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 어르신 건강 돌본다

전주시, 9월까지 폭염기간 중 금암노인복지관을 무더위 쉼터로 한시 운영 진영 행안부장관, 금암노인복지관 찾아 무더위쉼터 운영상황 등 점검

진영 행안부장관 장관이 전주시가 무더위와 열대야로부터 홀로거주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야간 무더위쉼터를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진영 장관은 22일 맞춤형 야간 무더위쉼터가 시범 운영되는 금암노인복지관을 방문해 무더위쉼터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용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진영 장관에게 무더위 쉼터 연장운영 및 시민들의 자

유로운 시설 이용을 위해 공공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야간 무더위쉼터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운영되며, 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과 잠자리 제공을 위해 개인용 텐트 및 침구류 등을 지원한다. 또, 건강체조와 영화상영 등 요일별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운영 질화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무더위쉼터로 모셔오는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야간 무더위쉼터 운영이 가능한 경로당을 추가 선정해 냉방비 등 지원을 통해 야간 무더위 쉼터를 확대 운영,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쉼터 이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송효철 기자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2일 전주푸드직매장 경기장점에서 소비자와 함께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양파김치 등을 담고 있다.

가격 하락으로 힘겨운 양파농가 돕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푸드직매장 경기장점서 양파소비 촉진행사 진행 양파김치·장아찌 담가 참가자와 사회복지시설과 나누는 소비촉진 전개

양파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가 열렸다.

재단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2일 전주푸드직매장 경기장점에서 소비자와 함께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한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소비자들과 함께 구입한 양파를 이용해 양파김치와 양파장아찌를 담가 절반은 소비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절반은 전주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센터는 이날 소비촉진 행사에 이

어 오는 24일에도 확산복지관에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남성 중·장년층 30여명과 함께 하는 소비촉진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단은 양파김치와 양파장아찌를 각각 400kg씩 담아서 200kg는 행사 참여자가 가져가고 200kg는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되는 만큼,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푸드 양파소비 촉진행사에 참여한 황은정 씨(38, 송천동)는

“양파로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장기간 보관 가능하고 즐겨먹는 요리인 양파김치와 장아찌 조리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 양파요리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 손으로 만든 양파요리를 지역사회의 다른 분들이 드신다면 뿌듯하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강성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양파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전주지역 양파농가의 고통을 나누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2일 시 기업지원사무소에서 방목 한류박람회 단체참가와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수행기관인 전북KOTRA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및 방목 한류박람회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 맞춤형 수출 지원·사후 관리 '집중'

전주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등 대상 사후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맞춤형 수출 지원과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22일 전주 시 기업지원사무소에서 방목 한류박람회 단체참가와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기업, 수행기관인 전북KOTRA지원단(단장 이광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및 방목 한류박람회 참가기업 사후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7일과 8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9 방목 한류박람회'에 전주지역 7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고, 6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홍콩과 하노이에 전주 동남아 무역사절단으로 7개 업체를 파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목 한류박람회 참가기업들은 남방시장의 거점인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수출상담과 제품 판촉, 메이커업쇼와 쿠팡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 참여, 인플루언서(유튜

전주정신 꽃심강사 파견지원사업 추진

전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전주정신인 꽃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학습공동체와 독서동아리 등에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강사파견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그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꽃심 역사교실'을 진행하며 전주정신 확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온 꽃심 강사들이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 전주정신과 꽃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꽃심 강의는 전주지역 기관·단체, 동아리, 독서 모임 등 학습공동체 7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 시 홈페이지(www.jonju.go.kr)의 '전주인문학 365' 코너 또는 온라인(naver.me/fktm3wu)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사 일정 조율 및 배정을 위해 강의 희망일자 최소 1주일 전에 접수하면 배정된 강사가 직접 수요자의 학습 공간으로 찾아가 전주정신의 의의와 중요성을 소개하게 된다.

박재열 전주 시 교육청 소년과장은 "전주는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워낸 도시"라며, "천 년의 세월 속에 녹아있는 전주정신 꽃심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 속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정신 꽃심강사 파견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참여 신청은 전주 시 교육청 소년과(063-281-5314)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스마트 디바이스톤' 개최

5G시대를 겨냥한 사물인터넷(IoT) 분야 미래인재 육성 및 취·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회가 열렸다.

'5G'는 수많은 장치들과 다른 서비스가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세상 구현을 위한 필수기술이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진흥원 내 ICT 디바이스랩에서 학생과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디바이스 분야의 우수아이디어 발굴과 제품화를 지원하는 '제6회 2019 ICT 스마트 디바이스톤'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디바이스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 팀 단위 협업 프로젝트로, 전주시 등 디바이스랩이 구축된 7개 도시에서 매년 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 창작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호남 행사에서는 36명의 메이커(9팀)들이 무박 2일이라는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 기획부터 간단한 동작이 가능한 시제품 제작, 시연발표까지 진행했다.

그 결과 참가자 및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거리 측정 센서를 부착하여 장애물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멈추는 자율 제어 전동휠체어를 개발한 FAU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지 않아도 스마트키를 소유하고 있으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리탐지기'를 개발한 3ft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들 수상팀에게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상과 함께 각각 150만원·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 디바이스 전주랩은 전북지역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를 위해 전문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컨설팅 지원, 스마트 디바이스 제작을 위한 장비 지원, 시제품 개발 환경 등을 지원하고 있다.

ICT 디바이스 전주랩은 공식 홈페이지(www.deviceab.kr)를 통해 오는 9월 8일까지 5G 기술을 활용한 '제6회 ICT 스마트 디바이스 전국 공모전(삼금 6500만원)' 참가신청도 접수 받고 있다. /송효철 기자

사회적 약자 보호 '정성치안 추진단' 활동 나서

전북경찰청, 종합대책 추진

전북경찰청이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활동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기능이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열린 추진단 첫 회의는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과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응방로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성안전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가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를 분석, 취약시간 및 장소에 대해 집중적인 예방순찰을 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수박업협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공중화장실, 탈의실, 수박업소 등 불법카메라 점검과 웹하드카르텔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가정폭력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추진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에게 성폭력으로 고충받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센터와 협업체고 상담과 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학대범죄와 실종사건 발생시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노인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조용식 전북청장은 "앞으로 전북경찰은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추진단을 중심으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경찰·기관·단체 합동 '정성치안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여성·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기관, 단체 등 총 114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찰의 종합안전대책 설명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수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다. /강성훈 기자

'유형비 필요해서' 상습 차량털이 일당 검거

전남·북 일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차량을 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경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모(21)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B모(15)군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일부터 8일사이 전북과 전남지역을 돌며 아파트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서 10차례 걸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일당 관계로 미리 범행을 공모, 렌트카를 이용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유형비를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성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사후평가체계 강화해야

전문가와 출장지 선택... 전북대 산학협력단, 방안 제시

전주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출장 보고서의 분회의 보고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출장 주제와 국가선별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전문통역가 동반 및 사후평가체계의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담당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2일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성과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국외출장결과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해 출장 결과보고서를 분회의에 보고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외출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출장의 주제(목적)와 국가 선별 단계에 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외 출장 시에 전문통역가를 대동해 현지 정치인이나 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공무국의 출장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보고서에 실제 출장의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서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출장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박병술 의장은 "이번 운영결과를 토대로 알차고 내실 있는 공무국의 출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을 지난 6월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운영결과를 기초로 출장 계획을 수립, 오는 10월경 공무국의 출장을 다녀올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설공단, '에코시티' 내 3개 지점 현수막게시대 신규 운영

전주시설공단은 신도시 개발 지역의 광고수요 충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주 송전동 '에코시티' 지구 내 시 지점 현수막게시대를 3개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현수막게시대는 송전정보통신 학교 4거리(2개)와 에코시티 14블록 앞 사거리에 각각 설치됐다.

공단은 계시대 확대 설치 요구 등에 따라 계시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적정장소를 물색 중이며, 하반기 에코시티 초·초등학교 앞과 건너편에 각 1개, 민성동 국민연금공단 입구 삼거리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송효철 기자